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1. 거듭난 사람
2. 성숙한 신자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 행 인: 이 중 윤 발 행 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65-18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국내외 목회자의 영적갱신을 통한 교회갱신을 기대하며

제 5차 목회자세미나 「강해설교와 영적갱신」을 주제로

한국교회갱신연구원에서는 제5차 목회자세미나를 오는 3월 28일부터 10주간에 걸쳐 매주 월요일 강남 YMCA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약 1800명의 목회자들이 수강한 목회자세미나의 이번 학기 주제는 「강해설교와 영적갱신」이다.

강단이 힘을 잃고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성경적 강해설교를 통해 영적갱신운동을 이루려는 목회자세미나는 벌써부터 경향 각지의 남녀 목회자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목회자세미나는 제1교시에 이중윤 목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 강해설교의 모델을 제시하고, 제2교시에는 열 분 대내외강사들의 주제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실시일	제 1 교시 14:00 - 15:30	제 2 교시 15:50 - 17:20
3/28	로마서강해 이 중 윤 서울장로교회 Ph. D. St. Andrews	현대목회의 문제점과 제안 김영한(숭실대 / Ph. D. Heidelberg대)
4 / 4		21세기 한국교회의 설교사적 전망 이만열(숙대 / Ph. D. 서울대)
4/11		예언자들의 설교와 영적갱신 민영진(성서공회 / Ph. D. Hebrew대)
4/18		바울의 설교와 영적갱신 박용만(ACTS / Edinburgh대)
4/25		성경해석과 강해설교 계지영(포항북부교회 / Ph. D. Clairmont대)
5/2		설교자의 영성과 교회갱신 류기중(한국문화신학연구소 / Ph. D. Drew대)
5/9		주제설교와 강해설교 정성구(총신대 / Ph. D. Free대)
5/16		설교와 목회심리 심상권(기독교상담문화연구원 / Ph. D. Clairmont대)
5/23		설교구상과 실제 김소영(기독교서회 / D. D. Manahath대)
5/30	고난의 역사와 한국의 미래 김상철(변호사 / Ph. D. Cand. 서울대)	

제 5차 김치세미나 러시아 교계지도자 31명 초청

국제 선교와 교회갱신 한국연구원(Korea Institute for Mission and CHurch renewal International)에서는 러시아 교계 지도자 31명을 초청하여 제 5차 김치세미나(KIMCHI Seminar)를 오는 5월 25일부터 10일간 개최기로 했다. 김치세미나 준비위원장 오정수 장로는 러시아 복음주의 동맹교단, 러시아 침례교회연맹, 러시아 감리교회 등 개신교 지도자들과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세계복음화를 촉진시키고자 해마다 복음의 불모지의 기독교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영적 충전의 기회를 가지게 하며 특별히 한국교회의 새벽기도를 배워 자국 복음화에 기여케 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제1차에 동구라과 7개국 목회자를 비롯, 제2차에 중국계 목회자, 제3차에 인도와 스리랑카 등 힌두교권 목회자, 그리고 작년 아프리카 21개국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영성훈련을 한 바 있는 김치세미나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효과적인 전도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기회로 알고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참여해 왔다. 김치 본부에서는 러시아 목회자의 초청과 세미나 진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3월 첫 주부터 모금하기로 했다. 어느 집사님은 세미나 기간 중에 사용할 대형버스의 운행경비 전부를 책임지겠다는 헌신의 약속을 벌써 해음으로 준비위원들은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 선교합창단 내교

-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 -

러시아인으로 구성된 선교합창단원 13명이 지난 13일에 내한하였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교회들을 방문하여 러시아교회 지원과 기도요청을 하기 위해 찬양하며 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는 오늘 찬양예배시에 특별순서를 가진다. 또한 이들은 이중윤 목사의 부산 집회에도 동행하여 찬양을 드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계절학교

지난 17일부터 3박 4일간 대학부 수련회가 광림수도원에서 있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도 교회학교별로 겨울성경학교가 계속된다.

각 가정의 자녀들 뿐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할 많은 영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권유하자.

부 서	주 제	실시일	장 소	주강사
유치부	하나님의 집에 나와 기도하자	2월 23일 ~ 24일	유치부실(지하)	구미경 전도사
유년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2월 23일 ~ 25일	유년부실(2층)	미정
초등부	꿈을 키우는 어린이	2월 24일 ~ 25일	초등부실(4층)	김주아 전도사
중등부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	2월 24일 ~ 26일	광성훈련원	김재성 목사
고등부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자	2월 24일 ~ 26일	광성훈련원	김재성 목사
청년부	청년의 때, 말씀을 따라 삼가자	2월 28일 ~ 3월 1일	소망수양관	이만열전도사
사랑부	성령이 임하시면	2월 22일	사랑부실(2층)	유수영전도사

창세기강해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딸들

(창세기 6장 1 ~ 4절)

이 중 윤 (목사 · 당회장)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서 왜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고 딸은 '사람의 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말씀 속에는 어떤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

첫째, 셋의 후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얻은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인류의 역사는 결국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로 양분되어 내려왔습니다. 역사의 종말에는 가인의 후손들은 멸망에 처하고 셋의 후예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계시사적이므로 구원사적인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셋의 자손을, '사람의 딸'이란 가인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일컫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15절과 신명기 32장 5절에는 셋의 족보를 통해 경건한 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하와 창세기 6장 5절에 언급된 노아의 이야기에는 그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 5절을 보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라는 설이 있습니다. 유다서 6, 7절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탈선한 천사를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 그리고 38장에서는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옆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함께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 천사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왕이 풀무 불 속에 세사람을 집어넣었는데 그 불속에서 네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네번째 사람의 모

양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천사를 일컬을 때 사용하지 않고 항상 성도를 일컬어 한 말입니다.

70인역 성경을 보면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천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는 사람만이 아니라 천사가 범한 죄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가 확실하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천사는 중성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늘에 있는 인간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결코 천사가 중성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천사는 남성명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이 천사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통해 이 이론이 더욱 명확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은 것입니다. 네피림은 힘이 장사이고 '침략자' 혹은 '폭군'으로 표현됩니다. 이 거인이 용사로 고대에 유명한 자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인간 가운데 갑자기 네피림이 나타났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천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분명히 알 수 없고 해석이 어렵습니다.

2.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을 사탄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계계를 꾸며서 첫번째 아들 가인에게 들어가 그로 하여금 살인하게 합니다. 사탄이 승리한 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다시 셋을 허락하시어 그의 계보를 통해 에녹, 노아 등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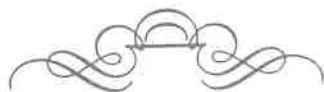
때 당황한 사탄은 여인의 후손을 통해 자신이 멸망당할 것임을 알고 여인의 후손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타락한 천사, 악마로 하여금 인간의 딸들과 혼인하게 한 것입니다. 이같은 사탄의 꾀략은 모든 종족을 혼잡케 하면 구세주는 이 세상에 올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연유했던 것입니다.

사탄은 그 당시에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메시아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6:12)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주님이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이 세상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가 오심으로 오늘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승리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결과는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의 영전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자기 비만중

자기 비만중에 걸려있는 이들이 있다. 진리를 찾고 의를 추구하기 보다는 자만 방자하여 자칭 의인 노릇하는 이들이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삶의 최우선을 삼는다. 자기 비만중에 걸린 자는 감사할 줄 모르는 합병증까지 갖고 있다. 가진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건만 축복은 당연한 것이고 자기 업적의 결과라고 까지 생각하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고마움을 알 리가 없다.

자기 비만증이 심해지면 수치심까지 상실한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 하나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얼굴에 기름기가 많아져 가족이 두꺼워져서인지 좀처럼 안색을 변하는 법도 없다. 죄짓고 오히려 자랑하고, 비난받을 짓을 해 놓고도 자화자찬하며, 변명과 공격을 능사로 한다.

"주여, 자기 비만이 아닌 성령충만한 자 되게 하옵소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인간

승리

크 새 소나기라도 퍼부를 듯 감감한 먹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한줄기 찬란한 햇살처럼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가슴을 우뚝하게 해 주는 젊은이들의 패기는 꿈과 희망의 새로운 지평(地平)을 보여준다.

장애와 불치의 병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대학에 합격한 두 고교생의 눈물겨운 사연과 영하 수십도의 남극점을 걸어서 정복한 탐험대의 승리는 각고의 고통과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써 이룩한 인간 승리라 할 것이다. 이들은 극한 상황에서 포기하고 돌아설 수 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불굴의 의지로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했

다는 점에서 아무리 칭찬해도 오히려 부족하다. 대학에 합격하고 남극점을 정복했다해서 상전벽해의 변화가 올 것도 아니고 장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승리가 이토록 값진 것은 노력하고 애 쓴만큼 결실한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실증해 주었기 때문이다.

뜻대를 향하여 질주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있는 한 폐강도와 돈 봉투와 양심부재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圭〉

◆ 순례자 캠페인 ① - 바른 예배드리기 ◆

1. 5분 일찍 오기
2. 앞자리부터 앉기
3. 먼 곳부터 주차하기
4. 드리고 받는 예배 (예배순서와 그 의미)
5. 가정예배 드리기

써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오르간 전주 - 예배 15분 전부터 시작. 교인들은 마음을 정돈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한다. 무언 사죄로 진행되므로 성경본문을 미리 찾아보고 묵상하는 것이 좋다.

▶차임 - 정시에 차임이 울려 예배의 시작을 알린다.

▶예배 선언과 입례송 - 인도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라고 선언하고 온 회중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대는 입례송을 불러 주님이 임하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선포한다.

▶예배의 부름 - 인도자가 시편을 읽어 성도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며 찬양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전에 그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기원 - 간구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참회의 기도와는 다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구하는 기도이다.

▶찬송 -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예배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면서 찬송한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한다.

▶성서교독 - 칼빈은 예배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신 노래인 시편만을 부를 것을 강조했다. 사람에게 의해 씌어진 찬송가에는 그 사람의 사악한 것들이 스며있기 때문이다. 예배시 시편을 노래로 불러야 할 성도들이 그렇게만 할 수 없다면 교독이라도 해야한다는 것이다.

▶송영 - 시편을 노래 혹은 교독한 후 성삼위일체의 영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해야하므로 시편이 아닌 찬양을 부른다.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영광스런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가지는 의미와 교훈을 바로 앞으로

▶기도 - 본래 목회자가 해야 하는 순서인데 한국교회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말이 서툴러 장로들에게 순서를 준 것이 지금까지 전통으로 이어져오는 것이다. 이시간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감사, 회개, 간구와 중재기도,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 병든 자와 낙심한 자들을 위한 기도, 설교자와 찬양대를 위한 기도를 하되 전체예배시간을 고려하여 5분이 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찬송 -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성경봉독 - 앞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므로 성경봉독은 예배순서의 중심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봉독자는 청성껏 준비하여 경건한 목소리로 정확하게 봉독하여야 한다.

▶성도의 고백 -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은 단에 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할 것을 가르치셨다. 고로 광고사항을 통해 형제의 일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

▶헌금 - 생명을 드려 하나님께 헌신할 것을 물질로 바침으로 확인한다. 이를 봉헌할 때 물질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함께 바쳐야 한다. 온 교회는 기립하여 봉헌송과 봉헌기도를 드린다.

▶찬양 - 회중이 부르는 찬양에는 준비가 없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찬양에 온사를 받은 이들이 찬양대를 구성하여 준비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게 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다.

▶새가족 환영 - 새로운 사람이나 방문자 뿐 아니라 온 교회는 서로 환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을 기뻐한다.

▶설교 -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여 선포하는 것을 설교라 한다. 이때 목사는 성경적 설교를 해야한다. 칼빈은 예배시에 이빨이 보이도록 웃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하여 자갈을 물려 길에 끌고 다니며 망신을 주고 책망했다.

성경봉독 전은 주로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설교 전에는 감사의 행위가 강조된다. 우리의

감사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설교로 응답해 주신다. 따라서 예배의 두 부분이 형식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설교 후 드리는 기도는 선포된 말씀대로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역사에 의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찬송 -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다시 찬송을 드리면서 감사와 신앙적 결단을 하며 헌신을 다짐한다.

▶축도 -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 세상에 살되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부탁한 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목사가 선포한다.

▶주기도 합창 - 모든 기도의 모델이 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합창하므로 예배시작의 입례송과 대칭을 이루어 균형있는 예배가 된다.

예배 순서마다 갖든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하고 새겨서 경건함과 감사가 넘치는 기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1994. 2. 20.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입례송 Choral Prelude	찬양대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화답송 Choral Response	찬양대
찬송 Hymn	다함께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함께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다함께
송영 Doxology	다함께
기도 Prayer	장로
찬송 Hymn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인도자
성도의 고백 Members' Fellowship	다함께
헌금 Offering	다함께
봉헌송 Offering Hymn	다함께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교자
찬양 Anthem	찬양대
새가족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함께
설교 Sermon	아름다운 목사
“Your plan or God's?”	
찬송 Hymn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설교자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함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나는 표입니다.

● 교사양성부와 교사기도회를 시작하며 ●

"어머니의 가슴"

김광신 (장로·교육위원장)

교육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소 팔고 땅 팔아서 자녀 교육에 심혈을 쏟았었다. 그 덕을 톡톡히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교육의 내용이 문제였고 가르치는 자의 자질이 모자랐었다.

교회교육의 현주소는 학교교육만큼도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또 아무리 잘 가르쳐도 그 효과는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긴 시간이 걸려야 하는데 그나마도 유능한 교사가 가르쳤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겠는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것만큼 큰 노동은 없다. 왜냐하면 아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하고 본인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의 학생들은 암기식 공부와 전달식 공부에 숙달되어 있어서 인격적, 학문적, 신앙적 내용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며 행하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같이 망해갈수는 더욱 없는 것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역사에 순응해야 하겠다.

우리 교회의 교육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도 이런 공통을 덜어주고 다른 교육의 장을 열어보자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3월부터 시행하려는 프로그램은 교사양성부를 개설하여 교사로서 필요한 교과 과목을 교육받게 하고 자격있는 교사의 길에 들어서게 하려는 것이다. 특히 교사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에 한번도 참여하지 못했던 교사들과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사들을 위하여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교회학교 교육에 임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많이 배우고 적게 가르치는 비결을 배워야겠다. 우등생 교사로서 나 자신을 평가받기 위해서 끊임없는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하나 시행하려는 것이 기도를 모으는 일이다. 기도의 능력은 아무도 그 자원을 다 써 본 사람도 없고 교회도 없는데 우리도 그 기도의 위력을 사용해 보자는 것이다. 무엇이 달라져야 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무릎 꿇어보자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매달려 보면 길이 있고 해답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우리 교회 교육위원회가 꿈꾸는 교사상은 천국일꾼을 키우는 어머니의 가슴이다.

● 70인전도대원 및 기도후원자 모집 ●

· 모집기간: 1994년 1월 30일 - 2월 20일 (4주간)

· 지원서 배부 및 접수처: 사무국 혹은 교구담당 교역자

교사양성부 신설

교회학교 교사 지원자 및 '93, '94신임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양성부를 신설하여 교사 지원자와 '93, '94년도 신임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3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매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4층예배실에서 진행될 교사양성부 프로그램의 과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 3월 6, 13일 - 신약개설 / 임진태 목사
- 3월 20, 27일 - 구약개설 / 장용휘 목사
- 4월 3일 -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 원필현 목사
- 4월 10일 - 성경적 교사상 / 권상석 목사
- 4월 17일 - 공과작성 및 교수법 / 김재호 목사
- 4월 24일 - 효과적인 반목회 운영 / 최병호 목사
- 5월 1일 - 교회교육과 발달 심리 / 김주아 전도사
- 5월 8일 - 교육상담이론과 실제 / 심상권 목사

학원선교회 창립

2월 28일 (월) 오후 2시 창립 준비모임

선교위원회에서는 각급학교(유, 초, 중, 고, 대) 교원 및 학원관계자들로 구성된 학원선교회를 창립하고자 한다. 학원선교회의 주요사업은 학원복음화를 위한 청소년선교, 학교생활의 상담과 지도, 미래 지도자를 위한 기독교 교육, 기독교학생반 활동지원과 봉사, 크리스찬 교육자 훈련 등이다.

3월 6일(주일) 오후 3시에 가질 학원선교회의 창립을 위한 준비 모임은 2월 28일 (월) 오후 2시 2층예배실에서 있으며 교육관련 유관단체 종사자,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청소년 복음화 사역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목회사동경

- 이종윤 목사는 부산 동노회 남선교연합회 주최 연합집회를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동래교회당에서 갖는다. 한편, 이목사는 「사랑의 연수원」에 기증된 경남 거제도의 토지(약 1만 5천 평)를 답사하고 25일에 귀경할 예정이다.
-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임 옥 목사)는 제 5차 총회에서 이종윤 목사를 교회발전위원장으로서 선임하였다.

교우동경

- 이명용 집사 (제5교구 사당 2다락방 · 교동부 교사)가 경기전문대 교수로 임용되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LKY 837KHz) 「성경교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LKX 1188KHz) 「나의 길길 다가도록」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아세아방송(HILAX 1566KHz) 「주일설교」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교회당 신축을 위한 터전을 허락하소서
2. 우리 나라를 온갖 어려움에서 지켜주시옵소서
3. 교회학교 학생들이 이번 계절학교를 통해 거듭난 사람,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이 되게 하옵소서
4. 목회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가 갱신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에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